

석사학위논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기법 연구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혜은

2004년 8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기법 연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양 혜 은

양혜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기법 연구

양 혜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오늘날과 같은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상담과 상담자의 존재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롭다. 상담자는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자질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조력전문가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질을 온전히 갖춘 효율적인 상담자, 예수의 상담기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담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상담사례를 살핌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예수를 고찰하여 그의 인간관, 상담자로서의 특성, 상담기법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신약성경의 4복음서 중 예수의 참 모습을 그려내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는 요한복음의 상담사례로서 상담자 예수와 내담자이며, 연구방법은 내용분석과 문헌연구를 택하였다. 요한복음에서 11개의 예수 상담 장면을 발췌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관, 상담자로서의 특성, 예수의 상담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 상담기법 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담기법으로,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 8가지 상담기법을 중심으로 예수의 상담사례를 살핀 결과, 예수의 상담은 수용과 사랑의 상담이었으며, 때로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상담이었다. 예수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내담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다가가 그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며, 그를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역시 따뜻하고 진실한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또한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5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가 인식한 인간은 피조물이며, 관계적, 심리적 존재이고 고통 받는 존재인 동시에 행동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예수는 내담자의 내면의 것, 능력, 행동하는 실천력을 끌어내어 문제해결에 이르게 하였다.

예수는 인간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둔 상담자였다. 또한 자신감 있고 따뜻한 상담자였으며, 사려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용기 있는 상담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담자 예수의 상담기법을 살펴보면,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대부분의 내담자들에 대해 상담자는 한결같은 관심과 수용, 공감의 자세로 그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함께 나누었으며, 때로는 질문과 직면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변화로 이끌었다. 또한 해석을 통해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때로 강한 권고로 내담자의 자기통찰을 도와 변화되고 발전적인 삶으로 인도하였다. 그 외 상담자 예수가 보여준 특징적인 상담기법으로 치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내담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준 상담자 예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상담방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역시 절실한 것으로, 현실의 상담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사례분석을 위한 상담기법 고찰	5
1. 상담의 정의	5
2. 상담기법 고찰	8
III.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 분석	28
1. 요한복음의 특징	28
2. 예수 상담사례 분석	29
IV. 예수의 상담기법	54
1. 예수의 인간관	54
2. 상담자로서 특성	56
3. 예수의 상담기법	58
V. 요약 및 결론	62
1. 요약	62
2. 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내면세계,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가끔씩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들은 누군가 그를 깊이 존중하며,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그의 고통과 혼란, 그의 성장과 열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적인 신비의 세계를 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을 꿈쩍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조정환, 1995).

오늘날은 변화와 혼돈의 시대이다.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가 거듭되는 가운데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오히려 많은 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방황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내던져진 사람들에게 있어 상담자의 존재는 더욱 가치롭다.

상담자는 전문적,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조력전문가이다.

자신만의 이론적 틀과 가치관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전략과 기술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이러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은 그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자신감을 지니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을 때 인정된다.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기술만을 지녔다고 하여 상담자의 자질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상담관계의 발전에는 상담자의 사람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바람직한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이형득, 2000). 조현춘 외(1996)에 의하면 상담자는 매 상담 장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

신을 가지고 온다. 즉, 상담자는 자신의 인간적 자질과, 현재의 성격을 형성하게 한 생활경험을 상담시간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에 정통하고 면접기술을 익힌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Combs(1986)에 의하면 효율적인 상담자는 세상이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을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친절하다고 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조현춘 외, 1996, 재인용).

이렇듯 전문적이고도 인간적인 자질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효율적인 상담자의 모습은 예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완전한 상담자의 모습을 갖춘 예수에 대한 연구는 윤상용(1988)과 주금용(2000)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윤상용(1988)은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예수의 자질을 논하면서 상담자 예수의 완전성을 제시한다. 그의 연구는 예수의 전인적 인간이해에 근거한 그의 상담사례를 분석하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가 행했던 상담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폈다. 또한 그 특성이 일반상담에 주는 시사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벽한 상담자로서의 예수를 고찰하였다. 주금용(2000)은 예수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 행동,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관찰력이 뛰어난 상담자이며, 심적·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내담자들에게 감정을 용납해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을 나타내어 깊은 신뢰감을 주는 상담자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선지자 Isaiah는 그의 저서 「이사야」에서 예수의 이름을 “wonderful counselor”라고 했다. 예수에 관한 성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의 생애 자체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상담관계였다. 성과 촌에 두루 돌아다니며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에 관계없이 다 만나 주었고 그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송증복, 1975). 예수는 상처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한 진실한 상담자였다.

성경 속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연구로는 송증복(1975), 박국배(1989), 이상은(1991), 김봉환(1994), 조정환(1995), 강옥련(1997), 김영호(2000), 주정일(200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상담이론을 근거로 4복음서에 대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예수의 상담원리를 제시하거나,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예수의

상담을 살피고 그에 대한 적용까지를 제기하고 있다.

송중복(1975)과 조정환(1995)은 Rogers의 비지시적·내담자중심이론, 김영호(2000)는 공감과 공감적 이해에 근거하여 예수의 상담을 살폈고 박국배(1989)는 전인적 이해에 기초한 예수의 상담방법론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상은(1991)과 김봉환(1994), 강옥련(1997)은 각각 60건, 40건, 16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수의 상담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정일(2002) 역시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을 고찰함으로써 상담원리를 밝히고 있으며, 예수의 상담자로서의 독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예수 상담에 접근하려 하였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11개의 상담사례를 통해 예수의 인간관과 상담자로서의 특성, 상담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담의 기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 상담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예수의 상담기법을 분석하고 상담자로서의 예수를 고찰하여 인간관, 상담자로서의 특성, 상담기법을 밝혀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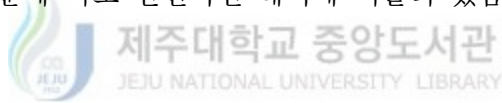
- 1) 사례분석을 위한 상담기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 요한복음의 상담 사례에서 어떠한 상담기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 3)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4) 상담자로서 예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5) 예수가 사용한 상담기법은 어떠한 것이며 효과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11개 상담사례로서 상담자 예수와 내담자이다.
- 2)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문헌연구에 의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예수의 상담사례에 나타난 상담관계, 상담기법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예수의 상담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2) 예수 상담의 능력과 그 효과는 신적인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상담의 방법은 일반상담과 다를 것이나, 본고는 이러한 신앙적인 접근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다소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음을 밝힌다.



Ⅱ. 사례분석을 위한 상담기법 고찰

여기서는 우선 일반적인 측면과 기독교상담의 측면에서 상담의 개념을 살피고,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상담기법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 상담의 정의

상담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내담자와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상담자 간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상담자는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상담'의 의미에 부합하는 접근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따라서 상담을 한 마디의 말로 정의 내리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Tyler(1969)가 간결하게 지적했듯이 상담(counseling)이란 말은 누구나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두 사람이 꼭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이다(전찬화, 1986). 이현림 외(1995)도 상담이란 개념은 그 사용하는 사람 즉, 각 개인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라틴어 Consulere는 고려한다(to consider), 반성한다(to reflect), 조언을 받는다(to take counsel), 상담한다(to consult), 조언을 구한다(to ask counsel of)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임형진 외, 1990). 상담(Counseling)은 이 Consulere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상담의 의미를 한자에서 살펴보면, '相談'은 두 그루의 나무가 눈을 맞대고 서로 마주한다는 뜻인 서로 상(相)자와 불과 같이 서로 활활 말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야기 담(談)자가 결합된 것으로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만큼 상담의 개념 안에는 '만남'의 의미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담심리학에서의 상담이라고 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이 도움을 주고, 또 한 쪽

은 도움을 받는 조력적인 면담을 의미한다.

조력적인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Pepinsky & Pepinsky(1954)는 상담을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를 도와서 그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내담자를 개별적으로 조력하는 활동이며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호작용의 과정이라 정의한다. Krumboltz(1965)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 혹은 안내해주는 행동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개인 각자가 설정한 자신의 생활목표가 달성되도록 도와주는 목표달성 조력행위를 상담이라 하였다. 또한 Tyler(1961)에 의하면 상담은 “개인 각자가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주위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개인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발달체제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Osipow(1980)역시, 상담이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그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혹은 중요한 생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이라 정의하면서 조력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장호(1995)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 하였고, 이현림 외(1995) 역시 상담의 전문적 조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상호작용의 인간관계이며, 이때 인간관계는 성장과 발달이란 결과를 가져오고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는 전문적인 관계”가 그것이다. 전영복(1993)도 같은 맥락에서 상담을 정의하는데, 그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특수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였다.

비지시적인 상담을 표방하는 Rogers(1952)는 상담이란 치료자와 서로 흥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구조(the structure of the self)를 이완시켜 그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새로이 구성되는 자아구조 속에 통합·조정해 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상의 것들은 일반적 측면에서의 본 상담의 개념이다. 기독교상담 측면에서의 상

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gers의 비지시적인 방법을 목회 상담 방법에 적용한 Hiltner에 의하면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기성 형식의 충고라든가 권면 혹은 명령으로 피상담자로 하여금 피동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피상담자 자신이 행동할 수 있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통찰력을 가지게 도와주는 과정이다(이대우, 1989, 재인용).

Crabb(1992)은 상담이란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로 고통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하느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 하였다. Collins(1984)에 의하면 상담은 한 사람(상담자)이 다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내담자)을 충고하거나 격려하고 보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두 사람 또는 둘 이상 사이의 관계이다. Clinebell(1983)은 상담은 문제를 성장 지향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회복적 기능, 즉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이라고 하였다(강옥련, 1997, 재인용).

이상은(1991)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담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맺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문제 해결과 전인적인 성장에 목표를 두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 상담을 정의하고 있으며, 강옥련(1997)은 내담자의 현재 불균형한 문제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과 자기통찰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진리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여 책임있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담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측면에서나 기독교 상담 측면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은 만남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내적 성장이 그 목적이 된다.

2. 상담기법 고찰

여기서는 어떤 학파의 독특한 기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기보다는 상담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담의 일반적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면접에서 종결에 이르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상담자 개인이 옹호하는 이론이나 자신만의 이론에 근거한 독특한 기법과 일반적으로 두루 통용되는 일반상담기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이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상담기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 상담기법의 전반을 살핀 후,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상담기법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들 기법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 성격과 방법에 있어 다소 중복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기술로서 제시, 설명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상담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조력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기술의 습득에 앞서 상담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을 촉진, 격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이와 같은 측면을 상담의 기본요소 또는 필수조건이라고 하여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이현림 외, 1995).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상담을 발전시킨 Rogers(1979)는 그의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설기문, 2000, 재인용).

‘만약(if) 카운슬러의 태도에서 어떤 조건이 나타난다면(then), 그때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실성(일관성),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 중핵적 조건을 말한다. 한승호 외(2000)는 Rogers의 이 세 가지 조건을 일치성(진실성), 무조건적인 수용성, 감정이입적 이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Rogers의 이론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자

상담자의 태도 및 기술에 관한 언급이기도 하다. Tyler(1969)는 이를 진지성, 수용, 감정이입적 이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현림 외, 1995, 재인용).

반면 Carkhuff(1969)는 상담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Rogers가 제안한 3가지 상담기술에 온정, 구체성, 자기노출, 즉시성, 맞닥뜨림을 추가함으로써 상담과정을 일층 심층적으로 조직화했고 상담기술로 구체화시켰다.

조선희(2000)의 분류를 통해 상담의 촉진적인 조건에 따른 학자들의 상담기법을 비교해보면, 우선 Adler(1929)는 호의적인 이해(understanding friendly way)로, Horney(1939)와 Alexander(1963)는 친절하게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 friendly)과 관심(interest)으로, Dollard와 Miller(1950)는 공감(empathy), 수용(acceptance/positive outlook), 정신적인 자유감(mental freedom/restraint), Sullivan(1954)의 경우 개인적인 의미의 각성과 존중(personally implicated awareness/respect)을 상담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Dreyfus(1964)는 개방성(openness), 이해(understanding), 비판단적(letting-be), Van Kaam(1966)은 진실성(sincerity), 수용(acceptance), 친절(gentleness), 비판단적(nonjudgmental), 창조성(creativity)을 주요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Traux(1967)는 진실성(genuineness), 정확한 공감(accurate empathy), 비소유적인 온정(nonpossessive warmth)을, May(1967)는 참 만남(encounter), 공감(empathy), 비위협적인 분위기(nonthreatening atmosphere)을 상담기술로 들고 있다.

개인심리학적 상담 분야의 학자 Eckstein(1981), Hansen(1971), Mosak(1972, 1979), Shilling(1984), Sweeney(1989)(설기문, 2000, 재인용) 등은 그들의 상담모형에서 사용하는 주요상담기술을 설명하면서, 개인심리학적 상담모형의 독특한 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상담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상담기술에 속하는 기술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관심기울이기, 경청하기, 공감, 구체성, 진실성, 자기노출, 바꾸어 말하기, 맞닥뜨림, 해석, 즉시성이 그것이다.

한편 강기호 외(1987)는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 유입기법으로 정중한 돌봄, 경청, 의역(Paraphrase), 감정의 반응, 위안을, 촉진기법으로 격려, 해석, 침묵, 질의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 외 조인을 설명하면서 대상에 따라 적절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함을 언급하

고 있다.

장혁표 외(1993)는 Adler학파가 사용하는 기법들의 수가 많고 다양함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경청 및 반응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재진술, 반영, 예감, 해석, 비언어적 행동, 즉시성 등이 그것이다.

김계현(1995)은 상담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면서 관심집중, 경청, 이해 세 가지를 상담의 기본원리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기법 외에 조언과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 논의하는데, 이광준(1998) 역시 교육상담의 성격이 강한 경우, 조언, 명령, 격려가 중요한 상담기법으로 활용된다고 보고, 이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충기(1996)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의 일반적 대화기법을 살펴보면, 라포형성, 반영, 수용, 구조화, 바꾸어 말하기, 경청, 요약, 명료화, 해석 이상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원호택(1997)은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기법들을 수용, 경청, 탐색, 안심화, 공감적 반응, 반영, 명료화, 구조화, 연결·요약적 반응, 직면, 해석, 이상의 11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장호 외(1999)는 상담의 접근방법을 논의하면서 상담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기술로 경청,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김유숙(2000)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일반적인 상담기술을 제시한다. 라포형성, 질문기법, 구조화, 내용에 반영하기, 감정에 반응하기, 요약하기, 자기노출, 직면, 해석이 그것이며, 특히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법으로 경청을 들고 있다.

제석봉 외(2001)는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내적 및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보다 깊은 공감, 정보나누기, 상담자의 자기개방, 관계점검, 제안과 권고, 직면, 탐색과 요약 을 제시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상담기법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기법들을 묶어 이를 종합해보면, 진실성(일치성), 수용, 공감적 이해, 온정, 친절함, 관심기

울이기, 비언어적 행동, 존중, 비판단적, 비위협적인 분위기, 관계점검, 정중한 돌봄, 위안, 안심, 라포형성, 격려, 반영, 개방성, 자유감, 창조성, 자기노출, 즉시성, 구체성, 명료화, 재진술, 정보나누기, 예감, 탐색, 요약, 연결·요약적 반응, 구조화, 맞닥뜨림, 경청하기, 해석, 바꾸어 말하기, 의역, 질문, 제안, 권고, 조언, 침묵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상담자는 상담초기에 내담자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기울이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말에 공감과 수용의 태도로 경청하며, 질문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외적·내적인 정보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보다 깊은 접근을 위해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해석하고, 언행의 모순과 불일치에 대한 직면으로 문제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안과 권고로써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진행과정 중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담기법을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로 압축한다.

이 8개의 기법을 중심으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예수, 그의 상담기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상담기법

(1) 관심기울이기(Attending)

관심기울이기는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설기문(2002)은 관심기울이기에 대해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과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제석봉 외(2001)에 의하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attending)은 상담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관심집중, 관심기울이기란 즉, '내담자와 온전하게 함께 하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담자와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디딤돌이 되어 문제의 이해

와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교환하게 된다(김계현, 1995; 임용남, 2000, 재인용).

상담자는 앉은 자세, 눈 마주침 등과 같은 물리적인 관심집중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담자와 함께 하는 심리적인 관심집중 또한 요구받게 된다. 이에 설기문(2002)은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관심기울이기 행동에 다음과 같은 반응, 행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좋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몸의 위치, 움직임 그리고 앉은 자세 등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표명과 존중의 정도를 전달한다고 보고, 상담자 자신이 신체적으로 이완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좋은 자세에 대해 제석봉 외(2001)는 내담자를 향해 앉는다는든지, 이따금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때 '개방적'이라는 말은 내담자가 하는 말에 귀와 마음을 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는 행동은 자칫 관심이나 도움 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 취하기 또한 내담자를 편하게 만드는 좋은 자세에 해당한다.

설기문(2002)이 제시하는 관심기울이기 행동 두 번째는 온화한 시선으로 내담자를 대하라는 것이다. 내담자를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함으로써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계현(1995)은 한국의 정서를 고려, 시선처리에 대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밝은 눈, 부드러운 눈,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내담자의 눈과 표정에 시선을 맞추되 눈을 노려보지 않기, 상담자가 말하는 동안에도 내담자의 표정을 살펴 그의 반응을 읽어내기, 내담자로 하여금 관찰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시종일관 내담자의 눈을 들여다보기보다 이따금 시선을 옮기기, 내담자가 상담자와 시선을 맞출 때에는 함께 시선을 맞추어 주기, 내담자가 나와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단지 문화적 습관에서인지, 나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때문인지에 민감해지기, 이상 7가지가 그것이다.

상냥한 얼굴표정과 음색 또한 관심기울이기의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밝고 상냥한 얼굴표정과 미소를 보이며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반응이 된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 반응을 포함시킨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내담자의 말 끝에 살짝 웃어준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반응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랬군요.”, “맞아요.” 등과 같은 맞장구를 통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 자신이 진실한 상호작용의 수단이 되는 자기 신체와 음성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시 자기 몸을 통해 꾸준히 전달되는 단서와 메시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경청(Listening)



경청한다는 것(listening)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시지가 언어적으로 전달되든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든 분명하게 전달되든 모호하게 전달되든, 내담자가 전달하려 하는 메시지를 상담자가 포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제석봉 외, 2001). 이때 내담자의 메시지를 ‘포착’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이장호 외, 1999)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선택적인 주목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경청은 내담자에게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며,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탐색하게 하며, 상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이장호 외, 1999). 또한 상담자의 경청은 ‘침묵의 적극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는데(전영복, 1992), 상담자는 적게 말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하여 경험의 깊은 내면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은 몸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함께 해 주는 것이다. 즉 경청은 단지 귀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강기호 외(1987)는 상대방의 언어를 들어줌과 동시에 그 언어 속에 내포된 감정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제석봉 외(2001)는 완벽한 경청을 하기 위한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가 나타내는 자세,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황, 즉 상대방이 처해 있는 사회 환경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내담자가 언젠가는 깨닫고 변화시켜야 할 문제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숙련된 상담자는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 정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내보이는 독특한 관점이나 경향까지도 경청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청'은 내담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3)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공감적 이해, 또는 공감에 대한 정의는 그 접근하는 방법과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공감은 공감적 이해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용어의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Rogers(1959)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그와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하였다(하정희, 1997, 재인용). 공감과 공감적 이해의 관계를 언급한 이광준(1998)은 공감 본능에 이해가 더해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감이 들게 되는데, 이것이 곧 공감적 이해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 깊은 사랑의 관계이며 상대방 중심의 첫째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인간의 본래적인 것임을 덧붙이고 있다. 이장호(1982)는 공감적 이해를 일컬어 치료의 순간 순간마다 드러나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상담자가 예민하고 정확하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오성춘(1990)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심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김영호, 2000, 재인용). 또한 정원식 외(1999)에 의하면 공감적 이해는 자신을 잠시 제쳐 놓고 상대방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보고 행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더욱 밀접히 다가가게 하고 더욱 깊고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여 내담자 내부에 존재하는 불일치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다(조정환, 1995).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말에 공감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여 더 깊은 수준의 공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감에도 1차적 공감과 심화된 수준의 2차적 공감이 있다. 박성희(1994, 재인용)에 의하면, Carkhuff(1969)는 상대방이 진술하고 표현한 것을 언어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상호교환 가능한 공감', 상대방이 진술하고 표현한 것뿐 아니라 그가 암시한 것이나, 말하지 않은 것 또는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들까지 진술하는 공감을 '부가적 공감'이라고 하였으며, Egan(1982)은 전자를 '기본수준의 공감' 후자를 '심화수준의 공감'이라 지칭한다고 하였다. 제석봉 외(2001) 역시 두 가지 수준의 공감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들은 이를 기본적인 공감(basic empathy), 보다 깊은 공감(advanced empathy)이라 표현한다.

기본적인 공감은 내담자가 현재의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그리고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감정들 밑에 깔려 있는 경험들과 행동들을 기초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정만영, 1994)으로서 내담자의 명백한 진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보다 깊은 공감은 내담자가 분명하게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표현하지 못했거나, 암시만 하고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하여 그것을 내담자가 확실히 이해하게 한다. 제석봉 외(2001)는 보다 깊은 공감의 경우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아직 활용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능력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언급하면서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불 줄 안다고 하였다.

공감적 이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데, 언어와 비언어행동 등의 여러 가지 반응이 공감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공감을 전달하는 이들 방법 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박성희 외(2001)는 이를 <장단 맞추기>로 요약되는

반응>이라 표현하였다. 언어행동이든 비언어행동이든 모든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대해 공명한 바를 되울림 해 주는 것이라 하며, 이런 되울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장단 맞추기라 하였다. 올바른 공감적 이해를 표현하려면 내담자의 감정에 장단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따라가고 있는 장단을 정확히 찾아서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내담자의 신체반응, 정서반응, 지적반응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그것들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서 공감적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석봉 외(2001)는 공감적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책략을 제시한다.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 반응을 짧게 할 것, 내담자에 맞게 반응을 하되 자기 자신을 지킬 것. 우선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지나치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내담자가 하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내담자가 하는 말의 핵심을 찾아 짧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어조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정확한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담자 자신 내에 존재하는 자아와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이형득 외, 1985) 해준다. 상담의 전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진실로 함께 하려는 태도가 내담자에게 전달될 때, 내담자의 성장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4) 수용(Acceptance)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관계 조건의 하나로 수용 또는 존중을 들고 있다(박성희 외, 2001). 인본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 Rogers는 공감적 이해, 진실성과 함께 상담자의 태도로서의 수용의 의미를 강조, 성장의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상담관계에서의 수용의 의미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Rogers로부터 시작한다.

박성희 외(2001)는 「상담과 상담학」에서 Rogers(1967)가 이야기하는 수용의 의미를 자세히 인용해 놓고 있다. 이 인용문에는 Rogers가 중시한 수용의 핵심 요

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요소들을 개념화하면 '비소유적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온정 어린 배려'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수용의 다른 표현이 된다. 한편 설기문(2000)은 수용을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로 표현한다. 속으로든 겉으로든 판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조사하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시인이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이 없이 내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현림 외(1995)는 수용이란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상담자의 따뜻하고 친밀한 태도가 수용의 시초가 됨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한승호 외(2000)는 Rogers가 이야기한 상담의 필요조건 두 번째, 무조건적 수용성을 가리켜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서 그를 한 사람의 독립적 인간으로 수용하는 상담자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용의 자세를 갖춘 상담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담자에 대해 일체 판단하지 않으며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장혁표 외(1995)는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중립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면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까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수용이 상담관계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태도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내담자를 수용하는 목적과도 일치한다. 수용의 목적은 단지 상담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며, 내담자를 변화 ·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때 내담자의 성장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듯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아예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는 큰 요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자신의 여러 결점과 어두운 점을 회피 또는 도피하는 태도를 뒤바꾸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상 외로 문제는 간단히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자아 거부'나 '자아 포기'의 상태를 어떻게 반전시켜 '자기 수용'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상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박성희 외, 2000).

다음은 박성희 외(2000)가 제시한 도식이다.

일상의 관계에서

타인들 → 자신 → 결과 → 타인처방 → 자신 → 결과
조건들 → 조건화 → 자아-거부 → 또 다른 조건들 → 자아-거부 → 문제의 악순환

수용의 관계에서

타인들 → 자신 → 결과 → 타인처방 → 자신 → 결과
조건들 → 조건화 → 자아-거부 → 대리-수용 → 자아-수용 → 문제극복

수용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 내담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상담자의 일관된 수용적 태도는 내담자의 자아수용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수용한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깊은 의미의 개념이다. 따뜻하고 온정적인 무조건적 배려는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또한 위로와 안식이 된다. 이처럼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결국 내담자를 성장시킨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의해 완전히 수용되고 있다고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내담자는 자기를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기수용을 통해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장혁표 외, 1993).

(5) 직면(confrontation)

직면기법은 내담자와의 확고한 관계를 토대로 행해진다.

제석봉 외(2001)는 이 직면을 도전기술에 포함, 직면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이 주저하는 신호에 보다 강력하게 도전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마정건(1988)은 그의 연구에서 직면을 문제해결지향요인의 하나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즉 직면은 내담자와의 깊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행해지는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보이는 역기능행동에 도전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해결점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갖는다.

박민수(2002)는 직면이란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상담자가 말로 지적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현림 외(1995)는 직면을 가리켜 내담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 특히 현실의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어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하였고, 이근후 외(1988)는 역기능적 행동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직접적인 지적을 해주는 것이 직면기법이라 하였다. 이때 역기능적 행동이라 하는 것은 내담자가 보이는 불일치성을 뜻하는 것으로, Truax와 Carkhuff(1967)에 의하면 직면은 이러한 내담자의 불일치성을 지적해줌으로써 내담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인간적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김영석, 1993, 재인용).

Carkhuff(1969)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적해주는 불일치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 둘째 내담자 자신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의 불일치, 셋째 상담자의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불일치 등이다.

Patterson(1974)은 여기에 네 번째 불일치성으로 내담자의 자신에 대한 관점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의 불일치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담자의 불일치성을 지적해줌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영석, 1993,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직면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반면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위협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담자가 미숙하고도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직면을 보일 경우 상담관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게 되고 자칫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련한 상담자는 직면을 시키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수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취하며, 결코 자기 개인적인 의도에서 반응하지 않는다(이장호 외, 1992). 진정한 직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아의 어떤 영역을 고려해 보도록 요구하는 것(김충기 외, 1993)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통합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조선희, 2000). 이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와 함께 호의적인 태도로 사용되어야 하며(이근후 외, 1988), 내담자가 상담자를 깊이 신뢰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진솔하게 배려하는 분위기에서(이장호 외, 1999)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직면의 목적은 단순히 내담자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내담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내담자의 잠재성을 포함하는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김용태, 1989), 이것이 곧 직면의 바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김영석(1993)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직면이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려고 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불일치성이나 왜곡 · 모순된 태도 등을 음성적으로 명료하게 지적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이때 내담자의 불일치성이나 왜곡은 자신의 장점 혹은 단점,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직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직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면의 올바른 표현방법과 그 사용시기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6) 해석(Interpretation)

상담에서의 해석은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이장호 외, 1999)라 할 수 있다. 즉 내담자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와 그 관련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장호 외(1999)는 해석에 대해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은선(2001)에 의하면 해석은 내담자가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의 진술이고,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와 원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은선(2001)은 해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통찰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배우고, 자신에게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감정을 파악하고 강렬화하려는 것이라 하였는데, 때로 내담자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덜 낯선 감정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내담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도록 자기통제를 촉진시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임을 덧붙인다.

해석의 대상과 내용은 상담 과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이장호 외(1999)는 초기의 면접, 상담의 중반기, 종반기에 따른 해석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초기면접에서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와 미온적인 태도를,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의 방어 기제들이나 문제에 대한 생각, 느낌 및 행동 양식 등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상담의 종반기에 들어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해석하면서 해석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기에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좋은 해석은 내담자가 거의 깨달은 후에 제공하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은선(2001)은 먼저 내담자에게 해석을 요구함으로써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내담자의 현재 통찰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모든 해석을 상담자가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가장 적절한 의도는 통찰을 촉진하고 감정을 알아내고 강렬화하며, 자기 통제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해석의 목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내담자가 자신은 많은 노력을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단정을 내릴 경우, 상담자는 해석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김유숙(2001)은 해석을 '문제의 재정의(reframing)'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 가능한 새로운 문제로 보게 해 주는 것으로, 상담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담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해석이 제공될 때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제시한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며, 새로운 이해에 대하여 흥분하게 된다(주은선, 2001).

해석은 내담자의 준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이고 새로운 이해를 갖도록 돕기 위해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와 도전의 전 단계를 토대로 상담의 전 과정 안에서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제공하는 해석에 의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질문(Question)

질문은 정보를 수집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질문자의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척도(박성희 외, 2001)이다. 질문을 통해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상담에서도 흔히 활용되는 기법이 질문이다. 그러나 상담 관계에서 사용되는 질문기법은 단순하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으로 이끌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해소'되는 것(박성희 외, 2001)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열린질문과 닫힌질문, 혼합질문의 분류가 가능하며, 직접질문과 간접질문, 이중질문과 단일질문, 그 외 가상질문, '왜'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린질문과 닫힌질문은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 각각 '개방적 질문, 폐쇄적 질문(설기문, 2002)'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닫힌질문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질문은 내담자의 반응을 제한하려고 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열린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명확히 하거나 탐색할 것을 요구할 때 쓰이는 질문형식으로, 내담자의 자유롭고 다양한 반응을 촉진하는데, 김영혜 외(2002)에 의하면 열린질문은 상담의 초기와 중기에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위한 중요한 반응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열린질문에는 “어떻게” 혹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다. 주은선(2001)에 의하면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불명확할 때 명확히 하도록 하고, 산만하고 애매할 때 집중하도록 격려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음으로써 부적절한 사고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몰입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이 열린질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혼합질문은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질문과 보다 상세한 반응을 요구하는 열린질문이 섞여 있는 질문형식이다(박성희 외, 2001). 일반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박성희 외(2001)는 혼합질문은 라포가 형성되고 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직접질문은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는데 반해 간접질문은 의문부호로 끝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궁금증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보통 “~이 궁금하군요.”, 혹은 “~했겠군요.”로 표현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직접질문은 상대방을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간접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강요받는다느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상담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드러내어 내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중질문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특성을 가진다(설기문, 2002). 한 가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단일질문과는 달리 이중질문은 내담자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제 삼의 답을 갖고 있는 경우 당혹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질문형식이다. 이대우(1989)는 상담자나 내담자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상질문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을 법한 갈등, 가치관, 사고, 느낌, 등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질문형식으로서, “만일~라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질문을 받은 내담자는 골똘히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박성희 외, 2001).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왜’로 시작되는 질문은 내담자를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내담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의 형식에 대해 전영복(1992)은 사용 시 그 방법과 시기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개방된 질문과 간접적 질문을 사용할 것,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성희 외(2001) 역시 이중질문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내담자에게 질문에 대한 준비를 시킬 것, 질문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 내담자의 관심사에 적절한 질문을 할 것, 민감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등이다.

(8) 권고(Advice)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강력하고 존중할 만한 관계가 형성되면 '보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안이나 권고는 내담자가 망설임에서 벗어나 어떤 일을 '행하게'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제석봉 외, 2001).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지적·정의적·행동적으로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다(임형진 외, 1990). 이런 측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강기호 외 1987)이 상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충고나 조언 등의 지시적 언어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법의 사용을 논함에 있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담자의 지적 수준과 상담의 상황을 고려, 권고의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강기호 외, 1987; 김계현, 1995; 제석봉 외, 2001).

제석봉 외(2001)는 상담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회를 보다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둘째 목적은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자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문제를 바로 보고 또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심스럽지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권고이다.

효율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안과 권고, 나아가 지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제석봉 외, 2001).

‘권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도록 타이르며 권함(동아출판사, 1993)’이라는 의미로 표현된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다는 의미에서, ‘권면’ 역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동아출판사, 1993)’이라는 의미인 권면은 내담자의 성격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담적 형태로 만나는 것(노성호, 1983)을 전제로 하며, 내담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윤석호, 1994). 기독교상담에서는 권고 대신 권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권고는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면에서 내담자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담기법이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서슴없이 제안하고 권고한다. 그러나 상담자는 신중해야 한다. 제안과 권고, 권면은 상담자의 분별력과 경험, 지혜와 절제가 요구되는 ‘도전기술(제석봉 외, 2001)’이다.

지금까지 상담과정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일반상담기법 8가지를 살펴보았다.

관심기울이기는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내담자와 온전히 함께하는 방법이다. 상담자의 앉은 자세나 눈 마주침 등과 같은 물리적인 관심집중 뿐 아니라 상담자가 자신을 꾸준히 자각하고 인지하여 심리적으로 내담자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내담자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상담과정에 더 몰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경청은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상담자가 포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귀로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내담자에 대해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을 뜻한다. 상담자는 말로써 표현된 메시지 뿐 아니라 내담자가 내보이는 비언어적 메시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관점이나 경향까지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의 내면 속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담자가 진술하고 표현한 것을 언어적

으로 공감하는 1차적 공감과 내담자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거나 암시만 하고 지나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하는 2차적 공감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내담자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용은 속으로든 겉으로든 내담자에 대해 판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관된 수용은 내담자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수용은 내담자 자신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직면은 내담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 특히 현실의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어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수용적, 이해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표현방법에 의해 활용될 때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상담에서의 해석은 내담자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와 그 관련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그 대상과 내용은 상담과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해석은 내담자가 거의 깨달은 후에 제공하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통찰을 촉진하고 감정을 알아내고 강렬화하며, 자기 통제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내담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재정의'라고도 표현된다.

질문은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열린질문, 닫힌질문, 혼합질문, 직접질문과 간접질문, 이중질문과 단일질문, 가상질문, '왜'라는 질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질문은 그 사용에 있어 방법과 시기가 중요한데, 가급적 열린질문과 간접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중질문이나 '왜'라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권고는 보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상담기법이다. 내담자의 지적 수준과 상담의 상황을 고려, 권고의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

금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권고는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면에서 내담자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담기법이다



Ⅲ.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피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요한복음의 특징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삼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이다. 이들 복음서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예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예수와 관계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김춘기, 1993).

이 네 복음서는 다시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공관복음서와 제 4복음서가 그것이다.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라는 의미로서, 최초의 복음서 마르코복음, 또 이를 자료로 하여 기록된 마태오복음과 루가복음을 일컫는다. 이들 세 복음서는 복음서의 구조, 순서, 관점 등이 비슷한 점이 많다.

반면 요한복음은 앞의 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른 예수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와 구분하여 제 4복음서라 한다.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기적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 요한복음서에는 일곱 번의 기적과 동일한 주제가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몇 가지 언사만이 나타날 뿐이며, 사람들과 예수와 맺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공적인 접촉보다는 개인적인 대화가 많이 나타난다.

가장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성종현, 1994)로서, 예수 생애의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그의 교훈의 종교적 의의를 중요시하고 이를 재해석하고자 했던 요한복음은 예수의 참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어, 4복음서 중 종합결정체

* 국제가톨릭성서공회(1999).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

인 대표적 복음서라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은 A.D.85~A.D.95년(임성빈, 1994)에 사도 요한에 의해 에페소(김수복, 1997)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집필목적은 복음서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복음 20: 31)

김춘기(1993)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조금은 피상적이며 표면적인, 깊이 못한 예수의 모습에 만족해야만 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예수를 통해 깊은 인간의 존재 근거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요한복음의 놀라움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

2. 예수 상담사례 분석

1) 사례 1 -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요한복음 1:35-51)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질문, 권고, 관심기울이기이다.

(제자 요한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 갔다)

상담자: (따라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내담자 1: 라삌(‘선생님’이라는 의미),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자: 와서 보아라

내담자: (상담자 예수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 날을 보냄)

내담자 1: (자기 형<내담자 2>에게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고는 예수에게 데리고 감)

상담자: (내담자 2를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베드로, 즉 바위라는 뜻)라 부르겠다.

상담자: (이튿날 갈릴레아로 가던 중 내담자 3을 만나 부름) 나를 따라 오너라.

내담자 3: (내담자 4에게로 가서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음을 알리고 미심쩍어 하는 내담자 4에게 직접 와서 볼 것을 권하였다.)

상담자: (내담자 4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내담자 4: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상담자: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내담자 4: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상담자: 네가 무화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다. 내담자 1,2,3,4는 각각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이다. 이들은 갈릴래아 바다의 어부들로서 학식도 그리 풍부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사회계층 면에서 볼 때 낮은 계층에 속하는 부류였다.

이들과 상담자 예수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던진 말이다. 송원준(2000)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질문을 15가지 목적에 의해 분류해 놓고 있는데 위의 질문은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질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찾는 기회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질문형식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열린질문에 해당하는 물음이다. 상담자는 “네, 아니오”의 단편적인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의문문을 사용,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 생각 등을 표현하도록 이끌고 있다.

내담자 1의 대답에 상담자는 “와서 보아라”라는 지시적인 권고의 말로써 내담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내담자 3을 만난 상담자는 역시 “나를 따라 오너라”하는 권고의 말을 전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

고, 내담자가 직접 행동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 예수는 직접적인 진술을 배제하여, 내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담자 4는 내담자 3의 권유로 상담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이는 상담기법 중 관심기울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내담자에 대한 관심은 상담자의 통찰에 의한 언급으로 표현된다. 내담자 4를 알아보고는 그에 대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며, 거짓이 없음'을 전한다. 이는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기인한 통찰의 말이었다. 이로써 내담자 4는 상담자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고백하게 된다.

내담자들 서로 간의 권유로 인해, 모두 상담자 예수의 제자가 되며, 이들 모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상담자의 마지막 말씀은 내담자들에게 상담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담자 모두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질문, 권고, 관심기울이기이다.

상담자 예수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의문문 '무엇'으로 시작되는 열린질문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욕구, 생각을 통찰하도록 돕고 있다. 권고의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욕구를 행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관심기울이기는 상담자의 통찰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내담자의 존재를 이미 알아채고 그에 대해 상담자가 먼저 언급함으로써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상담자의 관심어린 통찰의 말에 대해 내담자는 비로소 상담자를 바로 보게 된다.

2) 사례 2 - 니고데모와의 대화(요한복음 3:1-21)

이 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권고이다.

내담자: (유대인들의 자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를 찾아와

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답자: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답자: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상답자: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내답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답자: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일을 말하는 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구리뿔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은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멸

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상담자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적인 지도자이며, 정치적인 관원으로서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갖춘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높은 신분에 있었던 내담자가 그의 내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그 당시로서는 권력도, 지위도 없었던 상담자 예수를 찾아 왔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 처음으로 건넨 말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자에 대한 찬사였다.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숨긴 채, 다분히 사교적인 언사로 상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권고로 단도직입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답은 내적 불안과 갈등을 안고 고통당하는 내담자에 대한 연민에 기인한 권고의 말이다. 언뜻 보면 내담자의 첫 마디에 대한 상담자의 대답은 다소 엉뚱해 보이나, 예수는 깊은 통찰력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는 장황한 형식을 빌리지 않고 바로 상담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니고데모는 상담자 예수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내담자는 뜻하지 않은 직선적인 답에 혼란스러워하며 너무도 인간적이고 나약한 질문을 한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내담자는 상담자의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박국배(1989)는 이 상담사례의 핵심을 ‘거듭남’이라 표현하였다. 내담자의 문제는 지극히 종교적인 차원의 것이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상담자는 다시 “정말 잘 들어 두어라.”라는 권고의 말을 시작으로 내담자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상담 장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권고, 권면

기법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담자는 비로소 예수의 의미와 차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감추고 있던 허물을 벗고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 상담에서 예수는 표면적으로 권고의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더 깊게 살펴보면, 내담자의 통찰과정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증복(1975)에 의하면 이 상담을 통해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가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영적 사실에 기인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룻밤에 이루어진 짧은 면담이었지만 내담자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상담 이후 직접적인 내담자의 변화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내담자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 이 짧은 상담의 의미를 더 깊게 해준다.

그는 예수를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에서 그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예수의 편에 서서 이를 막는 역할(요한복음 7: 50-51)을 하였으며, 예수가 운명한 후, 유대인들이 무서워 제자들도 얼씬 못하는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 대담하게 신앙을 표명하였다(요한복음 19: 39-42).



이 사례에서 고찰한 주요 기법은 권고이다.

상담의 전반에 나타나는 상담자의 강한 권고의 말은 자신과 자신의 내적고민을 감추고 상담에 임하려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 내담자의 질문과 상담자의 권고의 말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담자는 자신의 영적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3) 사례 3 -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요한복음 4:1-42)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관심기울이기, 수용, 공감, 직면이다.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는 길에 예수는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상담자: 물을 좀 달라

내담자: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상답자: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답자: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상답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내답자: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상답자: 남편을 불러오너라

내답자: 남편이 없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답자: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내답자: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상답자: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내답자: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

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상담자: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담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함)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 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담은 치유 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이미 다섯 명의 남자들과 살다가 헤어졌으며,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나, 이 역시 떼뒀한 관계가 아니었다. 부정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외로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무리를 지어 함께 물을 길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한 낮 무더운 시간에 혼자서 우물가를 찾았다.

예수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 이때 상담자의 관심기울이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물가에서 본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상담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을 알아차리고는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간다. 당시로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적대감정이 있어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 하지도 않았던 때였다.

“물을 좀 달라”.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친절을 구하면서 상담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다. 이승덕(1996)은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가리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은 친구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상담자가 건넨 이 말 한마디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상담자는 한없는 수용의 자세로 내담자에게 다가갔다.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나약한 내담자, 그 존재 자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내담자의 현재 상황으로 내려가 그 여인과 함께 하며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는 공감한다. 상담자는 그녀의 좀더 깊은 곳에 자리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갈망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활용(김영호, 2000)하면서 상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상담자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보다 깊은 공감의 모습

이다. 상담자는 내담자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샘물에 대한 욕구를 바로 지적해준다. 이를 통해 대화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한다.

내담자는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비로소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긴 내담자가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순수한 인간성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상담자는 “남편을 불러 오너라”는 말로써 내담자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직면의 모습이다. 신뢰 관계를 토대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미 상담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내담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부 사정은 생략한 채였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에 상담자는 다시 수용의 자세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이 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라는 말로 내담자를 그대로 수용한다. 김양순(1982)이 제시한 것처럼 상담자 예수는 그녀 자체를 용납하였으며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정직함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내담자는 상담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둔 채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를 전하였다. 자신의 변화된 삶과 자신이 만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그 동안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으로 용기 있게 달려가게 된 것이다.

이 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관심기울이기, 수용, 공감, 직면이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은 내담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관심기울이기의 도구가 되었다. 상담자의 이러한 관심은 한없는 수용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건넌 의미 있는 관심의 표현이었다.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는 공감하면서 바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제시한다. 이로써 보다 깊은 공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상담자의 깊은 공감에 내담자는 순수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관계 안에 신뢰를 구축한 후 상담

자는 직면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든다. 이에 대해 내담자는 세부 사정은 생략한 채 사실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상담자는 또 한번 내담자를 수용한다.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상담으로 내담자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던 여인은 예수를 알리고자 사람들 속으로 달려간다.

4) 사례 4 -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요한복음 4:46-54)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공감, 치유이다.

(상담자 예수가 갈릴래아의 가나에 다시 갔을 때 고관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 가서서 아들을 고쳐 달라고 사정하였다.)

상담자: 너희는 기적이거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내담자: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 주십시오.

상담자: 집에 돌아가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내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길에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주었다. 그가 종들에게 자기 아이가 낫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가 “네 아들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내담자는 왕의 신하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사회적인 체면을 버린 채 상담자 예수에게로 직접 찾아와 치료해 줄 것을 간절히 청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다음의 말을 건넨다.

“너희는 기적이거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이 상담사례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내담자의 아들의 병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내담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는 문제의 핵심을 외

부에 두지 않고 내담자 내부에서 찾고 있다.

연이어 제 자식에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는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는 공감의 모습을 보인다. 내담자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내담자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확신 있는 말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내담자의 소망을 들어준다. 예수의 치유를 통해 병 든 아들이 낫게 되고 그로 인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담자의 단순하고 간절한 믿음이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공감과 치유이다.

상담자에게 직접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담자에 대해 공감하면서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어조로 내담자의 아픔을 해결해준다. 아들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면서 동시에 내담자의 내적고통을 함께 치유해주고 있는 것이다.

5) 사례 5 - 베짖다 못가의 병자(요한복음 5:1-18)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질문, 수용과 공감, 권고, 치유이다.

(상담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짖다라는 연못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왔던 것이다.)

상담자: (그들 중에는 삼십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내담자: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상담자: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니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고 나무라며, 요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나 소경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상담자: (얼마 뒤 성전에서 내담자를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베찌다라는 연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 병을 고치고자 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상담자 예수는 그들 중 38년이나 앓고 있던 병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기 못한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었으며, 치유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병자였다.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못에 들어가고 싶으나 그마저 허락되지 않아 절망과 무력감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측은하게 여기면서 공감해준다. 병이 오래 그 모습이 초라했을 것임에도 상담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강옥련, 1997).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을 한다. “낫기를 원하느냐?”. 내담자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송원준(2000)의 질문분류에 따르면 이는 의견 혹은 욕구의 표현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반응하도록 부추겨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문 형식의 분류에서 보면 언뜻 닫힌질문으로 볼 수 있으나, 38년이나 고통 받고 있는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네, 아니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내담자는 자신의 욕구를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으므로 기대할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수용과 공감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치유해준다.

얼마 뒤 상담자는 다시 만난 내담자에게 병이 다 나왔음을 알려주고, 다시는 죄를 말라고 권고의 언어로 강하게 이른다.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신체적

치유를 통해 사회와 자신의 삶에 더욱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질문, 수용, 공감, 권고, 치유이다.

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적, 내적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일깨워주고 있으며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권고함으로써 병을 치유해준다. 또한 후에 만난 내담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의 말을 확고히 하면서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를 통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6) 사례 6 -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요한복음 6:1-13)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질문이다.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상담자: (큰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내담자<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내담자: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온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 중의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담자: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예수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가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었다.)

상담자: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들여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 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자 예수는 내담자 필립보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영도자나 지도자가 지녀야 할 품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상담자는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다. 상담자는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알아보려 했다.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믿음 혹은 영적인 헌신을 입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송원준, 2000)으로서 필립보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존하고 자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너그럽고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국제가톨릭성서공회, 1999)로서 행동할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비록 '적은 재화'일지라도 골고루 서로 나누어 갖고 쓰도록 하는데 있으며, 지도자로 하여금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고, 모두의 선익을 위해 공동체 안의 각 구성원이 서로를 섬기도록 하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상담사례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들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심어 주고자 하였다.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군중을 배불리 먹여 보인 상담자는, 또한 제자들에게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몸소 보였다. 또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보게 하였다.

여기서 내담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상담자의 말에 순종하며, 온전히 그를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질문이다.

상담자는 이 상담 장면에서 질문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사랑과 연민의 마음

을 심어주고자 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적은 재화로도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순종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상담의 큰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7) 사례 7 - 물 위를 걸으시다(요한복음 6:16-21)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공감이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저어 갔을 때 예수께서는 어둠이 이미 짙어졌는데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은 사나워졌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십여 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 오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상담자: (제자<내담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담자들: (예수를 배 안에 모셔 들이려고 하였으나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



상담자는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담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진 내담자들은 물 위를 걸어 다가간 상담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에 두려운 마음까지 합해져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그들에게 상담자는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공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다. 두려워할 것 없음을 전하는 확신에 찬 상담자의 말은 내담자로 하여금 더없는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공감이 자비심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입장(이광준, 1998)에서 볼 때 이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태도는 불안에 떨고 있는 내담자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의 모습 그대로이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공감이다.

내담자들의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써 공감해주고 있다. 내담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공감은 내담자로 하여금 위로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8) 사례 8 - 간음한 여자(요한복음 8:1-11)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직면, 질문, 권고이다.

(상담자 예수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내담자 1>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내담자 1: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담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대답을 재촉하므로 고개를 들어 말하였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가 버리고 마침내 상담자 예수 앞에는 한 가운데 서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상담자: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내담자 2: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상담자: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상담사례는 집단상담을 겸하고 있는 형태의 것으로 내담자는 간음한 여자와 그녀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된다. 내담자 1은 여인을 데리고 온 군중이며, 내담자 2는 간음한 여인이다.

유대사회에서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

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의견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상담자 예수를 음모하려는 교활한 동기에 의한 술수였다. 즉 간음한 여자에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녀의 죄에 대해 처형할 것을 명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처형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 두 경우 모두 범법자로 몰아 고소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가 그녀의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 돌로 쳐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을 경우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예수는 모순된 존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내담자들은 그저 간음한 여인 하나를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죄나 목숨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상담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가만히 앉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면서 침묵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침묵하는 중에 내담자 그는 침묵하는 중에, 죄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끌려와 처참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과,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한 여인을 도구로 삼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긴 침묵을 지켰다. 상담자의 이러한 침묵의 활용은 여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에 대해 통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군중 역시 자신의 행동을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침묵. 이것은 어떠한 말보다 더 큰 위엄과 경외감을 주고 있다. 송중복(1975)은 Rogers가 말하는 상담자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담 중에 침묵을 치료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묘한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침묵도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치료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더욱이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해야 된다고 느낄 때 내담자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의 문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목일 때가 많다.

대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그는 놀라운 직면의 말을 던진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차례로 사라지고 결국, 상담자와 여인만이 남았다. 내담자들에 대해 직면한 후 상담자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쓴다. 그는 내담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지도, 보려하지도 않았다. 이 역시 자신들에 대해 깊이 통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려는 상담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자신의 앞에 남아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질문을 한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상담자는 내담자를 ‘말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여 아무도 그녀를 단죄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 후 그녀에게 상담자는 권고한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말로써 상담자는 그녀의 잘못을 굳이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군중들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두 번의 침묵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길 바랐다. 또한 상담자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그녀의 변화된 삶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은 여인의 내면에 죄를 이겨 낼 능력이 있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박성희 외, 2001)으로, 내담자에게 대한 무한한 수용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인석(1988)은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내담자는 이를 통해 자유를 얻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 상담사례는 비록 나약하고 허물어졌을지라도 그 자체로 소중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상담자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직면, 질문, 권고, 수용이다.

이 상담 장면에서 직면은 놀라운 상황반전을 이끌고 있다. 상담자는 타인에 대한 비난을 내담자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통찰로 전환시켰다. 직면은 내담자의 그릇된 감정과 행동을 지적해주는 것으로, 여기서 상담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직면의 말로 내담자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질문은 상담자가 또 다른 내담자, 간음한 여인에게 던지는 말이다. 내

담자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주체가 되어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상담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의 말로 내담자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죄인으로서의 내담자에 대한 수용,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담자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9) 사례 9 -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신 예수(요한복음 9:1-12)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공감, 권고, 치유이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 이 예수께)

내담자 1: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상담자: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상담자: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내담자 2: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와서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내담자 1, 즉 제자들은 상담자 예수와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된다. 그리고는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자신이나 이웃 또는 부모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불행을 가지고 있는 소경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예수에게 묻게 된 것이다.

이에 상담자 예수는 자신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님을 이야기한다. 어떤 하

나의 불행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이다.

이어, 상담자는 어둠에 갇혀 사는 내담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치유해준다. 내담자 2의 눈에 흠을 개어 바른 다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다. 명령형태의 권고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였고, 그 결과 소경의 눈은 밝아졌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그대로 믿고 상담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였고, 그 결과 질병을 치유하였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공감과 권고, 치유이다.

나면서부터 고통을 아고 살아온 내담자 2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상담자는 명령형태의 권고의 말을 전한다. 이때 상담자의 연민과 공감은 단순히 내담자 2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내담자 1에서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상담자는 하나의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려주며, 내담자 2의 신체적 고통을 깊이 통찰하며 공감해주고 있다. 이에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의 말을 따라, 신체적인 아픔을 치유 받게 되었다.

10) 사례 10 - 라자로의 죽음(요한복음 11:1-44)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해석, 질문, 경청, 공감, 치유이다.

내담자 1: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상담자: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담자 1: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담자 1: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담자 1<마르타>는 동생 내담자 2<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주자 마리아는 예수께 달려갔다.)

내담자 2: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담자 예수는 마리아와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상담자: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내담자: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상담자: (돌로 막혀 있는 동굴 앞에서) 돌을 치워라

내담자 1: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상담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쳤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상담자: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에게는 앓고 있는 오빠, 라자로가 있었다. 두 자매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가지 앓고 머무르던 곳에서 이들을 더 지내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는 말과 함께 그들 자매에게로 간다.

여기서 상담자는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김유숙(2000)은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을 일컬어 '문제의 재정의'라 명명하고 있다. 이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문제해결에 접근(김봉환, 1994)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찾아온 상담자를 원망하지만, 그것은 오빠를 잃은 슬픔과 좌절의 상태에서 비롯된 현재의 감정이었으며 상담자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였다. 내담자들은 여전히 상담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였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상담자 예수는 믿음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송원준, 2000)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확인시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이처럼 상담의 결과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마음껏 내면의 감정을 쏟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경청하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담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강옥련, 1997). 가족을 잃은 내담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담자 역시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린다. 이는 상담자 예수가 보여주는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상담자는 곧 상담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이면서, 자신감 있는 상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치유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강옥련(1997)이 제시한 바와 같이 내담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물으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답변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해석, 질문, 경청, 공감, 치유이다.

여기서의 해석은 긍정적 해석으로서, 상담자는 같은 문제 상황을 두고도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문은 내담자 1에 대해 믿음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상담자는 오빠의 죽음과 그 슬픔에 대해 토로하는 내담자 2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진실로 공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상담자의 치유로써 내담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11) 사례 11 - 예수와 베드로(요한복음 21:1-23)

이 상담사례에 나타난 주요 상담기법은 질문, 수용, 권고이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토마와 갈릴래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과 그 밖의 두 제자가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자: (이튿날 호숫가에 서계시며)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상담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는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 들었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 분은 주님이십니다.”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겹옷을 두르고 그냥 물 속에 뛰어 들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상담자: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베드로는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다. 그물 속에는 백 쉰 세 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가득히 들어 있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상담자: 와서 아침을 들어라.

상담자: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담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담자: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담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담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담자: (세 번이나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상담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라라.

상담의 이전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갈 당시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고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이 날은 예수에게, 절대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한 다음 날이었다.

부활 후, 예수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내담자 베드로는 믿음을 자신 있게 표명했던 자신이 상담자 예수를 철저히 배반한 데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며 과거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었다. 갓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조반을 들어라'는 말로 내담자를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주고 있으며, 따뜻한 상담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식사를 끝낸 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을 한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수용하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담자는 세 번이나 질문을 반복한다. 이로써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자아통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이 세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지난 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상담자의 꾸밈없는 사랑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 다

른 측면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이런 예수의 접근 방법은 Fromm이 말한 바와 같이 “상담 치료는 본질적으로 그의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을 얻거나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시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표면적으로 변화가 있었어도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가져올 수 없다(조정환, 1995).

그리고 상담자는 질문과 함께, 내담자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하는 권고의 말을 한다. 사랑과 수용의 말로써 내담자를 치유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부히 만들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담사례에서 고찰한 상담기법은 질문, 수용, 권고이다.

과거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다. 이 세 번 반복되는 질문 안에는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무한한 수용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이전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반성,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동시에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상담자는 앞으로 내담자가 해나가야 할 과업을 강한 권고의 말로 당부하고 있다.

IV. 예수의 상담기법

예수는 사람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높게 보았던 상담자였다. 그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적절한 상담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며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내담자들을 치유해줌으로써 내담자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었다.

앞서 살펴본 상담사례를 통해 상담자 예수의 인간관, 상담자로서의 특성, 예수의 상담기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수의 인간관

인간은 생물학, 심리학, 종교 및 철학적인 측면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 이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과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다.

상담에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둔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지녔던 인간 이해의 면모들은 바로 인간을 총체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조정환, 1995). 예수는 인간을 다음 5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는 예수의 이해의 대전제(박국배, 1989)가 되는 관점이다. 무엇보다 인간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사마리아 여인, 38년이나 앓고 있던 병자,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 소경으로 살아온 병자 등, 사람들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이들에게 다가간 예수는 인간,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했다. 이와 같은 예

수의 인간 이해는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수의 상담 전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박민수(2002)는 Hoekema(1988)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Farmer는 “인격적 대인관계는 인간실존의 기본 요소이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전영복, 1992, 재인용)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Buber(1965)는 “나와 너(I-Thou)” 라는 용어를 사용(한승호 외, 2000, 재인용)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일 수 없고,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이다. 예수 역시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관계 맺지 못하여 아파하는 내담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들을 수용하였고, 그들의 길을 제시하여 주었다.

셋째,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이다. 예수는 인간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내면세계를 중시(김봉환, 1994)하였고, 인간이 내적 욕구와 충동을 지니고 그러한 충동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기도 하는 복잡한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인 세계까지도 꿰뚫어 보는 심안을 가지고 있었다(조정환, 1995).

니고데모와의 상담 장면(요한복음 3: 1-21)에서 예수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화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의 갈등과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로써 내담자의 내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상담자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은 고통 받는 존재이다. 예수는 인간이야말로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이기에 그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로 보았다. 예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었다(이정희, 1993).

예수와 만난 많은 내담자들은 외적 · 내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고통을 함께하고 그 짐을 덜어주고자 했던 상담자였다. 상담자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연민의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단순

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을 고통 받는 존재로 인식했던 예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에게 대한 깊은 연민으로 내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 인해 내담자들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서도 벗어나 그들의 주변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다. 예수의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담언어는 명령하는 말로서, 김성환(2000)은 이때의 명령을 권면의 강한 형태라고 하였다. “나를 따라 오너라(요한복음 1: 43)”,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요한복음 5: 14)” 등의 권고의 말은 인간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또한 그렇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행동하는 존재라는 말은 타인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상담자로서의 특성



상담자는 상담기술이나 방법에 앞서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은(1991)에 의하면 Rickey와 Therese(1985)는 유능한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을 개방성과 수용성, 가치관과 신념, 따뜻한 인간관계, 객관성, 책임감, 발전성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Rogers는 상담자의 자질로 객관성,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 지식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형득(2000)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자신에 대한 각성, 용기, 창도적(唱導的) 태도, 끈기, 그리고 유머감이라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두, 상담자로서 기술이나 방법에 앞서 갖추어야 할 것은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 자질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예수의 조력 방식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그의 인격이었다. 자신의 가르침과 보호와 상담 속에서, 그는 조력자로서 효과적인 상담자의 모델이 되기에 적합한 특성과 태도와 가치 기준을 나타내었다(강옥련, 1997).

예수의 상담자로서의 특성을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예수는 인간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둔 상담자였다. Wise(조정환, 1995, 재인용)에 의하면 '예수는 사람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나 도덕적 가치나 혹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더 높이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상담에 있어 그 근본을 이루는 기본 개념은 인간의 가치였음을 강조한다. 예수는 그가 만난 내담자 '간음한 여인(요한복음 8:1-11)'에게 도덕적 가치나, 조직의 가치에 의해 판단하거나 벌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상담 장면에서 그녀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귀함을 몸소 보여주고 있으며, 내담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수는 자신감 있는 상담자였다. 이는 상담자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이해에서 비롯된 것(강옥련, 1997)으로,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세로 확신 있게 행동하였다(이상은, 1991). 따라서 상담자 예수의 말에는 힘이 있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권고의 언어를 사용함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또한 문제해결을 선포하는 말은 예수의 상담자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셋째, 내담자를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따뜻한 상담자였다. 예수는 있는 그대로의 내담자를 받아들였다. 주변에 의해 버림받은 내담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예수는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때로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고, 때로는 내담자를 만져줌으로써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그는 내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 포용력 있는 상담자였다.

넷째, 내담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닌 상담자였다. 상담자 예수의 상담은 한마디로 사랑의 상담이었다. 예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 마음을 다 하였으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 상담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상담자 예수가 상담한 내담자들은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상담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한 태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상담하였다. 예수가 만난 각각의 내담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예수의 사랑은 매우 인상적이고 경외감을 주는데, 그에 대해 신혜숙(1998)은 그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이와 함께 분별력을 통해, 사람들을 성장시키며 책임 질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 준 상담자 예수, 그가 보여준 사랑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자 예수와 내담자 간의 만남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 또한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보여주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찾고 사랑하게 되었다.

다섯째, 예수는 사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상담자였다. 내담자가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읽어낼 수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요한복음(2: 24-25)에 의하면, 예수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강옥련(1997)은 예수가 이 같은 분별력을 통해 내담자들을 성장시키며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었음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밝히고 있다. 여기서의 책임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용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을 용납하며, 내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살아갈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섯째, 예수는 실천하는 상담자였다. 그는 내담자와의 만남에 적극적이었으며, 상담자 예수에게 찾아오는 내담자에게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대해주었다. 또한 사마리아 여자(요한복음 4:1-42)와의 만남에서처럼 예수는 필요한 내담자를 직접 찾아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자 했던 행동하는 상담자였다.

일곱째, 예수는 용기 있는 상담자였다. 예수의 공생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수난의 순간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서 끊임없는 위협과 박해를 받았던 그의 고단한 삶 중에도 예수는 상담자로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 내담자이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담이 그러하였으며, 그 외 많은 상담 장면에서도 그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 38년 동안 앓은 병자를 고쳐주어 자신의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되었음에도, 상담자 예수는 또 다른 내담자를 찾아갔다.

3. 예수의 상담기법

III장에서 다룬 11개의 예수 상담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예수의 상담은 ‘내담자와의 인격적인 만남(강옥련, 1997)’이라 할 수 있다. 예수와 내담자와의 만

남은 내담자의 직접적인 요청, 혹은 상담자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시작하였으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개된 상담과정 안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숙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담기법의 측면에서,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 외,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상담기법으로 치유가 있다.

첫째, 관심기울이기이다. 예수가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따뜻한 관심기울이기이며, 이는 홀로 우물가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인 태도와도 같은 것이다. 상담자 예수와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상담자는 깊은 통찰로써 내담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내담자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어 상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 또한 상담자는 홀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친절을 구하는 말 한마디로 효과적인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에게 적극적이고 진실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서는 상담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상담자의 경청은 라자로의 죽음에 대한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담자는 오빠,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들의 슬픔을 경청한다. 늦게 도착한 예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표현하며 자신들의 슬픔을 토로하는 내담자들에 대해 상담자는 귀를 열어 경청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한다. 상담자의 공감어린 경청에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내담자들은 다시 상담자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된다.

셋째, 상담자가 보인 공감적 이해의 모습은 상담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 보다 깊은 공감의 태도로 그녀의 내적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이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순수한 인간성을 표출시킴으로써 감추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게 된다. 또한 상담자 예수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직접 찾아온 고관의 아픔에 공감하였으며, 38년을 앓아온 베찌다 못가의 병자와 소경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함께 아파하였고, 오빠를 잃은 내담자들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모두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으로서, 이로 인해 내담자들은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된다.

넷째, 수용 역시 상담자 예수가 내담자들에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이다. 냉대 받는 내담자들에 대한 무한한 수용의 자세는 내담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한 여인의 경우가 그러하였으며, 예수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 역시, 상담자의 수용적 태도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과오까지도 수용하게 되어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 간음한 여인, 베드로, 이들 세 내담자는 죄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의 테두리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상담자는 이들의 죄까지 수용하여 그들에게 다가간다. 이로써 내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를 수용하게 된다.

다섯째, 직면이다. 상담자는 두 여인과 관련된 상담사례에서 직면한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직면하고 있으며, 간음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와 예수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많은 군중을 향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는 직면의 말을 던진다. 이러한 직면의 모습은 상담 과정에 있어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 직면을 통해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과 함께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 또한 간음한 여인의 사례에서 상담자의 직면으로 통찰을 얻은 내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스스로 다물러갔다.

여섯째, 해석의 경우, 라자로의 죽음에 관한 사례에서 예수는 죽음에 대해 ‘잠들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 이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문제 상황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며, 동시에 내담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일곱째, 상담자 예수가 사용한 질문은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담자의 욕구확인을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열린질문이었다. 상담자 예수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베찌다 못가의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자로의 죽음과 관련된 사례에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담자들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담자의 질문은 내담자의 통찰을 도왔다. 자신의 욕구와 믿음에 대한 내담자들의 통찰은 상담자 예수가 던진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로써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람을 찾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여덟째, 상담자 예수는 필요에 따라 권고의 말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첫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 ‘나를 따라 오너라’는 권고의 말로 스스로 행동하게 하였으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상담자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단도직입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었다. 베찌다 못가의 병자와 소경에게는 치유로 이끌기 위한 강한 권고로써 내담자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또한 간음한 여자에게, 베드로에게 각각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양을 잘 돌보아라.’는 말로 내담자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8가지 기법 외에 예수가 보여준 특징적인 상담기법으로 치유를 찾을 수 있었다. 치유는 앞서 다룬 11개의 상담사례 중 4개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담자 예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변화를 도우려하였다. 상담자 예수의 치유는 완벽한 치유였으며, 상황과 내담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내담자의 내적, 육체적 고통의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치유하였으며, 치유가 끝난 후 내담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내담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치유하였는데, 베찌다 못가에서 만난 내담자의 경우, 강력한 권고의 말로써, 소경에게는 침과 진흙으로써 치유하였다. 치유의 과정에서 상담자 예수가 중요시 여긴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 믿음과 겸허함과 용기를 지니고 예수에게로 나왔을 때 상담자는 그들의 그러한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들을 치유해주었다(박덕기, 1998). 상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고관의 아들을 살려주었고,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베찌다 못가의 병자와 소경을 고쳐주었으며, 죽은 라자로를 살렸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상담기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봄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예수를 고찰하여 보다 깊은 상담기법의 원리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자는 상담과 일반적 상담기법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일반적 상담기법에 중점을 두어 요한복음의 11개 예수 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예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일반적 상담기법 중 8가지를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핵심기법으로 제시하였다.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로 압축된 이들 상담기법은 상담관계형성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이르는 상담의 전 과정 중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이 8가지 상담기법을 중심으로 예수의 상담사례를 살핀 결과, 예수의 상담은 수용과 사랑의 상담이었으며, 때로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상담이었다. 예수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내담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다가가 그들과 만났으며 그를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역시 따뜻하고 진실한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

상담자로서의 예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5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무엇보다 인간을 귀한 존재로 여긴 예수는 인간을 피조물로 이해하였으며, 관계적 존재라 하였다. 관계 맺지 못하는 내담자들을 수용하고 공감 해주었으며, 그들에게 관계적 존재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인간을 심리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는데, 그는 내담자들의 심적 문제까지를 끌어내어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고통 받는 존재라는 것이다. 상담자 예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끝으로 예수는 인간을 행동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주체적으로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에, 그는 내담자들을 변화시키

고 행동하게 하는 권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였던 예수는 인간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둔 상담자였다. 또한 자신감과 따뜻함과 사랑을 지닌 사려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였으며, 실천하는 상담자, 용기 있는 상담자였다.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 예수가 보였던 상담기법으로는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 또한 그 외에 치유가 있었으며 사랑과 연민의 마음에서 활용된 이들 상담기법을 통해 상담자 예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내담자에게 더없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5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우선, 예수는 인간을 피조물로 이해한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상담자 예수는 마음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했다. 또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는데, 이에 예수는 관계 맺지 못하여 아파하는 내담자들에게 관심과 수용으로 다가갔다. 인간이해에 대한 예수의 세 번째 관점은 인간은 심리적 존재라는 것이다. 예수는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닌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의 내적 세계까지 꿰뚫는 심안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고통 받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내적·외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마지막, 예수는 인간을 행동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그들의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상담자 예수는 권고의 말로써 내담자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였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예수의 상담자로서의 특성을 7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인간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둔 상담자, 자신감 있는 상담자, 내담자를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따뜻한 상담자, 무한한 사랑을 지닌 상담자, 사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상담자, 실천하는 상담자, 용기 있는 상담자. 이상 일곱 가지 특성은 예수가 지니고 있는 상담자로서의 특성이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상담자 예수는 사랑과 수용으로 내담자를 대하였고, 사려 깊은 통찰력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찾아내어, 자신감 있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요한복음의 11개 상담사례를 통해 예수의 상담기법을 분석한 결과, 예수의 상담기법은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관심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직면, 해석, 질문, 권고, 치유가 그것이다.

관심기울이기는 예수와 제자와의 첫 만남,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기법이다. 상담자는 깊은 통찰로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에게 적극적이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선다. 이로 인해 내담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경청은 라자로의 죽음에 대한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상담자의 경청으로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상담자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였다. 공감적 이해의 모습은 상담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깊은 공감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안고 있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고 있다. 수용 역시 상담자가 내담자들에게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이다.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 받던 내담자들에게 보인 상담자의 무한한 수용의 자세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내담자들은 더욱 풍성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직면은 두 사례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처벌하려는 군중을 향해 상담자는 놀라운 직면의 말을 던진다. 이에 내담자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통찰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된다. 해석은 라자로의 죽음에 관한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상담자는 죽음에 대해 '잠들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상담자가 사용한 질문은 세 가지 사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와 믿음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권고는 6가지 사례에서 보인다. 상담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권고의 말로써 단도직입적이면서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었고,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내담자들

에게는 행동을 명하는 권고의 말로 병을 낫게 하였다. 또한 간음한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권고의 말로써 의미있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보여준 특징적인 상담기법인 치유는 4가지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상담자는 이 치유로써 내담자의 육체적인 질병과 내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상담자 예수는 내담자들과 다른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었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었다. 또한 내담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내담자 자신, 그리고 그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완전한 상담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상담자로서의 모습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담자들에게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호, 차호원(1987). **집단상담의 이론과 기술**. 서울: 주식회사교보문고.
- 강리희(1998). **예수의 상담사역에 나타난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강옥련(1997).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원리 고찰 -예수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제가톨릭성서공회(1999).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 서울: 도서출판 일과놀이.
- 김계현(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봉환(1994).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상인(2000). **상담심리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샘가.
- 김성환(2000).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담사례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수복 역(1997). **요한 복음 읽기**. 서울: 성바오로.
- 김양순 역(1982).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서울: 생명의말씀사.
- 김영석(1993). **공감과 직면의 반응순서가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의상담 관찰자의 지각을 통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혜, 이혜성(2002).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각과 통찰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의 언어반응들.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제 3권 제 1호. 235-254.
- 김영호(2000).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공감사용의 방법과 목회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 김용태(1989). **상담초기의 촉진적 조건과 상담 효율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유숙(2000).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은경(1997). **예수의 상담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춘기(1993). **요한복음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들.

- 김충기, 김현옥 공역(1993). **상담과 심리치료의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 김충기(1996).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노성호(1983). **권면적 상담에서 본 성령사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 동아출판사(1993). **동아 새 國語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박국배(1989). **상담자 예수의 상담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박덕기(1998). **예수의 치유사역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민수(2002). 성도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복음과 상담**: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가을호 통권 27호. 43-91.
- _____ (2002). 교회 내 작은 공동체에서의 인간관계. **복음과 상담**: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여름호 통권 26호. 72-104.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박성희, 이동렬(2001). **상담과 상담학**. 서울: 학지사.
- 박종성(1996). **예수상담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서인석(1988). 예수와 율사들과 간음한 여인(중). **생활성서**: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생활성서사. 9월호. 82-85.
- 설기문(2000).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형득 편저. **상담이론**(pp.229-256).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0). 인간중심적 상담. 이형득 편저. **상담이론**(pp.123-151).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2).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성종현(1994). **신약성경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송원준 역(2000).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송증복(1975). **예수의 상담원리 연구-비지시적 상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혜숙(1998). **예수님의 치유목회와 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 염기석(2002). **치유란 무엇인가**. 서울: 클람출판사.
- 원호택(1997). 제 12장 상담의 전략과 과정.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편저.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pp.260-267). 서울: 사랑의 전화복지재단.
- 윤상용(1998).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석호(1994). **권면적 상담과 성장상담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이계성 역(2000). **3일 만에 읽는 성경이야기**. 서울: (주)서울문화사.
- 이광준(1998).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서울: 학문사.
- 이근후, 박영숙 공역(1988).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이대우(1989). **예수상담과 상담대화 기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상결(1992). **권면적 상담이론에 의한 복음서 상담사례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은(1991).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수(1995).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대인관계**.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승덕 역(1996). **작고도 큰 만남**. 서울: 성바오로.
- 이장호(1982).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 _____ (199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장호, 김정희(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공저(1999).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문사.
- 이정희(1993). **상담자 예수**.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이현림, 김영숙 공저(1995). **상담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이현주(1986). **예수와 만난 사람들**. 서울: 생활성서사.
- 이형득 외(1985).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형설출판사.
- 이형득(2000). 카운슬러의 역할과 자질. 이형득 편저. **상담이론**(pp.69-89). 서울:

교육과학사.

- 임성빈 역(1994).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임용남(2000). **경청에 대한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 임형진, 이시용(1990). **생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장혁표, 신경일 공저(1993).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 및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장혁표 외 13인(1995). **현대상담 ·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영복(1992). **상담의 이론과 기법**. 인천: 원창출판사.
- _____ (1993).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경기: 도서출판 잠언.
- 전찬화(1986). 서론 - 제 1절 상담이란. 전국대학카운슬러연구협회의회 편저. **상담의 이론과 실제** (pp. 1-7).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만영(1994). **목회상담에서 공감(Empathy)의 사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 박성수, 김창대(1999).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2001). **유능한 상담자**. 서울: 학지사.
- 조선희(2000). **상담의 이해**. 대구: 흥익출판사.
- 조정환(1995). **사목 상담 안에서 Carl Rogers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 대한고찰**.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 조현춘, 조현재 공역(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Σ시그마프레스.
- 주금용(2000). **상담자 예수를 모델로 한 상담방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
- 주은선 역(2001). **상담의 기술**. 서울: 학지사.
- 주정일(2002). **예수의 상담원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하정희(1997).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범주화가 공감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한승호, 한성열(2000).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Carkhuff,R.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2vol.).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umboltz, J. D.(1965). Behavioral Counseling: *Rational and Research*.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4, 383-387.

Osipow,s.H., Walsh,W.B., & Tosi,D.J.(1980). *A survey of counseling methods*.
Homewood,Ill.: Dorsey.

Peoinsky,H.B.,& Pepinsky,P.(1954).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nard..

Rogers,C.R.(1952). *Client-centered psychotherapy*,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Tyler, L. E.(Ed.)(1961).*The work of the counselor*.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Abstract>

The study on counseling technique appeared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Yang Hye Eun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current era, feel uneasy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the world. The existence of counseling and a counselor is, thus, very meaningful and valuable to them who are living in the period of the chaos and the rapid changes, the present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seling techniques of the effective counselor, Jesus Christ, who has this feature perfectly as the counselor. The counselor has to have technical and humanistic feature all as a assistant professional. Jesus Christ is the counselor.

For this, this study focuses on counseling techniques. It has a purpose on considering Jesus Christ as a counselor and investigating deeper principle of counseling techniques by studying counseling cases of Jesus Christ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we choose to analyze contents of John and to study literature as the method to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study. Eleven scenes of Jesus Christ as a counselor was selected, and through these scenes, the view of Jesus Christ about human being, the characters of counselor, and the counseling techniques of Jesus Christ are presented.

In this study, we present to have concern with the clients, to listen closely clients, to understand clients empathically, to accept clients, to face clients, to interpretate clients, to question clients, to advise clients as important and core counseling techniques among various kind of general counseling techniques.

Jesus Christ, a counselor, visited directly clients who have a mental anguish, and then counseled them actively. And Jesus Christ, who has a bright insight, figure out what do people want and also became true counselor to some clients visiting him under the necessity.

As a counselor, Jesus Christ understand human being in the five points of view: human as a created, a connective, psychological, suffered, and active existence. With a bright insight which is full of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Jesus Christ figure out the problems by accelerating people's potentials.

Jesus Christ was a counselor putting the best value on human itself. In addition, he was a self-confident and warm counselor, and the considerate owner of deep insight. And, he also showed the feature of a practical and brave as it is.

To the clients who was shunned and was treated contemptuously, this counselor always had consistent concern and acceptance, listened carefully and shared their pain with empathetic attitude. Sometimes, he led the clients to see their situations themselves by questioning. In addition, he helped the clients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s positively by interpreting it, and at times, led the clients to changed and developmental life by helping the client to do self-examination with strong advice. To add to this, the clients could be cured through remarkable counseling techniques which a counselor Jesus Christ presented.

A counselor Jesus Christ lived with the client with endless love to them. The

counseling techniques he presented are also earnest to people who live modern lives with pain, and they are considered to be able to become good examples to modern counselors.

